

늦봄 문익환의 통일내러티브에 대한 기독교사회윤리학적 분석*

오지석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늦봄 문익환의 방북 이전의 통일 내러티브
- III. 방북 이후의 내러티브 그리고 탈통일 상황 속의 통일의 가치
- IV. 나오는 말: 늦봄과 따로 또 같이 통일을 꿈꾸며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4.60.11>

* 이 논문은 송실대학교 2021년 교내학술연구비(21토대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이 연구의 아이디어는 2018년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기독교 내러티브 윤리로 읽는 늦봄 문익환의 통일이야기"에 기초하고 있고, 이를 발전시킨 것임을 밝힌다.

• ABSTRACT •

A Christian Social Ethics Analysis of Moon Ik-hwan's Unification Narrative

HK Prof., O, Jie-seok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does not simply consider Pastor Moon Ik-hwan's unification narrative as a topic of discussion in the 1980s and 1990s or as a story about unification that has already passed, but evaluates it as a living narrative within the K-community referred to as the Korean people, Korea, or Korea, and examines the influence of this narrative from a Christian social ethics perspective. Moon Ik-hwan's diverse and rich literacy contains a unification narrative that the Korean community should share. This study examines how he changed from a Christian anti-communist intellectual to a democratic unification activist through his various forms of literacy. Through the narrative changes before and after 1950 and after Jang Jun-ha's death, this study analyzes that in his ideological transformation, the discourse on democracy and unification could not help but become a discourse of the entire Korean people, not just a discourse of the Christian community. The unification narrative in the late spring letter is reinterpreted through a Christian social ethics (narrative ethics) method and remains a topic that must be pursued even in a post-division situation.

Key words: Moon Ik-hwan, Unification Narrative, Christian Social Ethics Perspective, Narrative Ethics, the Christian Community

I. 들어가는 말

이쪽에서 부는 바람에 저쪽으로 나부끼며 쳐다보는
남녘하늘
저쪽에서 부는 바람에 이쪽으로 나부끼며 쳐다보는
북녘하늘
그 두 하늘이 그 하늘이 다르기라도 한가요
무슨 소리냐
그 하늘이 그 하늘이지
내 왼쪽 눈에서 왈칵 쏟아지는
남녘하늘
내 오른쪽 눈에서 왈칵 쏟아지는
북녘하늘
가시 쇠줄로 찢어진 하늘
아프고 쓰리기로 말하면
그 하늘이
그 하늘이다

-〈두 하늘 한 하늘〉 중에서, 문익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2024년 우리는 이 노랫말처럼 우리는 맘껏 통일을 이야기하는가? 현세적인 우리에게 소원이고, 꿈인데 가당한 소리일까? 통일은 가상현실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게 하고 우리가 밭 딛고 서 있는 현실에서는 끝없이 갈등과 대립, 충돌을 일삼았기 때문에 더욱이 통일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이 이율배반이었다. 국내의 여러 상황에서 가장 절박한 소리이지만 제대로 소리 내지르지 못하는 것이 ‘평화’, ‘반전’, 그리고 ‘통일’에 대한 담론들이다. 평화, 통

일에 대한 소리가 높아지면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 한반도의 남쪽을 섬으로 만들어 놓고 감시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공개적으로 훌쩍 넘어 인위적으로 그어 놓은 선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몸으로 보여준 그 사람, 늦봄 문익환의 행보 그리고 자기 한계 속에 꼭꼭 숨어버리고 깊은 잠에 빠진 우리에게 ‘오늘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휴전선이 없다고 소리치는 일이라고’ 시어로 말하는 “잠꼬대 아닌 잠꼬대”¹⁾가 그것이다. 1989년의 문익환의 행보와 외침이 분단 79년과 전쟁 76년의 경험이 아직 지속되는 2024년 한국에서 어떻게 울리고 있는지 사뭇 궁금하다.

휴전休戰, 정전停戰이 아닌 종전終戰이 선언되고 실효가 발휘될 때가 언제일까? 남과 북은 한반도 내에서 1953년 이후 폭력적 통일이 중단된 채 65년 지속된 긴장과 공포심과 적개심을 기반으로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유지시켜왔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와 주변에서 무수한 폭력들을 불러왔고, 우리는 이것을 ‘분단 폭력이라고 한다.’²⁾

‘평화와 공존이 가능하다면 굳이 통일이 필요한가?’라고 묻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김성민의 지적처럼 ‘통일이 내 세대의 일이 아니거나’ 또는 ‘나와 밀접하게 관련되지 못한 일’로 규정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의 내러티브를 통해 기성세대, 다가오는 세대 모두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주는 고통과 아픔을 직시하고, 통일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몸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문익환은 민주화, 민주주의가 분단과 통일에 대한 감수성을 촉진시키고 분단극복과 통일이라는 가치를 통합시킨다고 보았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갈 길이 먼 것처럼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강한 회의와 의심이 통일의 필요성

1) 문익환의 1989년 시 「잠꼬대 아닌 잠꼬대」

2) 김성민, 「서문, ‘未來’와 ‘美來’, 다시 통일을 묻는다」,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원 엮음, 『한국지성과의 통일대담』, 패러다임, 2018, 4.

과 정당성을 외치는 것 못지않게 통일비용론, 통일회의론, 위장평화론 등으로 드러난다. 이런 까닭인지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평화로운 분단을 선호하는 이들과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 없는 평화’는 공허하고, ‘평화 없는 통일’은 맹목적인 뿐이다. 평화와 통일은 양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늘 상호 보완되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다.³⁾

이 연구는 늦봄 문익환 목사의 통일내러티브를 단지 1980~1990년대의 화두, 이미 지나간 통일에 대한 이야기로 간주하지 않고 한민족, 한국 또는 코리아로 이야기되는 K-공동체 속의 살아있는 내러티브로 평가하며 이 내러티브가 가지고 있는 영향을 기독교사회윤리학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II. 늦봄 문익환의 방북 이전의 통일 내러티브

우리 민족의 비극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국토의 분단, 민족의 분열이다. 민족의 비원,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민족주의 노선의 철저한 반성과 이의 새로운 전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은 염원과 꿈의 단계를 지나서 민족적 과학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민족 통일에 접하는 늦봄의 이념과 사상, 그리고 그 열정! 이는 혼돈의 80년대에 우리에게 비쳐지는 하나의 서광일 것이다. (문익환, 『통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학민사, 1984 표지글)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가장 먼저 이야기로 표현한다. 달리 말하자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야기는 근본적인 것이며 이차적이지 않다.⁴⁾ 이야기는 화자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중요한 경험”(significant experience)에 도달한다. 청중의 가장 좋은 반응은 자기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그 이야기

3) 김성민, 앞의 글, 5

4) 한기채, “제10장 기독교윤리와 이야기”, 한국기독교윤리학회편, 「기독교윤리학 개론」, 대한기독교서회, 2005, 238.

를 통하여 역시 “중요한 경험”으로 옮겨 가는 것이며 이럴 때 우리의 의식은 이야기에서 서로 합류한다.⁵⁾ 폴 리쾨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 경험의 역사는 이야기 형식을 빌려 언어로 표현된다.”⁶⁾ 통일 내러티브 또한 다르지 않다.

통일에 대한 내러티브, 생각의 출발은 분단의 고통과 그것의 극복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달리 말해 통일의 필요성은 전쟁과 분단이 낳은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 상처와 적대심의 극복이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적대심, 전쟁의 고통과 이산가족의 아픔, 자유와 인권의 제약, 한반도 구성원들의 자존감의 훼손, 천문학적 분단비용에 의한 제약과 우리들의 상상력의 제한 등은 남북주민의 현재보다 평안하고 행복한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았던 결정적인 요인들이다.

통일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남과 북이 서로 나뉠대로의 정체성이 있다. 북의 폐쇄적 사회 경험에서는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남쪽 사람들도 다양성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남북의 통일은 자기 한계와 내적 검열, 경계를 넘어서 양쪽 모두가 해방적 의미의 또 하나의 근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상상력을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사고해야 한다. 사람 위주로 사고할 때 분단극복과 평화 정착의 문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분단체제를 넘어서야 한반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획기적인 긍정적 변화를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문익환의 다양하고 풍부한 입말과 글에서 찾아보자.

5) Stephen Crites, “The Narrative Quality of Experience”, *Th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39/3(Sep. 1971): 306. 한기채, 위의 글, 238에서 재인용.

6) Paul Ricoeur, “Narrative Function” *Semeia* 13(1978):195. 한기채, 위의 글, 239에서 재인용.

문익환의 다양하고 풍부한 내러티브는 한민족 공동체가 공유해야 할 통일 내러티브를 담고 있다. 문익환은 목회자, 구약 교수, 성서 번역가, 민권 운동가, 민주통일운동가, 그리고 시인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⁷⁾ 문익환이라는 이름 앞에는 ‘늦은 봄’을 지칭하는 ‘늦봄’이라는 한글 아호가 붙어있다. 아호가 늦봄이 된 것은 1975년 절친 장준하가 당한 의문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 문익환은 그때까지 신학계에서 활동하는 신학자요 성서 번역가로 살아왔으나 이후 장준하의 못다한 삶을 살겠다며 그의 뒤를 잇겠다는 다짐을 한다.⁸⁾ 김형민이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익환이 아호를 ‘늦봄’⁹⁾이라고 부른 것은 자신이 늦게야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자각의 표출이다.

그는 스스로 아호를 ‘늦봄’이라고 지었다. 여기서 봄이란 계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 땀’을 의미하는 봄이다. ‘세상을 뒤늦게야 보았다’는 탄식과 반성의 의미로 지은 아호였고 먼저 깨닫고 행동한 친구들의 뒤를 잇겠다는 다짐의 작명이다.¹⁰⁾

문익환은 늦봄이라는 아호를 통해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넘나들고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여 한국 교회와 한반도를 잇는 ‘관계어’가 되었다.¹¹⁾ 그

7) 김창주, “늦봄 문익환 목사의 신학적 텍스트와 콘텍스트”, 『神學思想』181,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18,

8) 김창주, 위의 글, 44.

9) 김창주는 문익환의 아호가 만우晩雨 송창근(1898-1951)의 ‘만과 춘우春雨 조승제(1898-1973)의 ‘춘’을 절묘하게 합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여기에는 송창근과 조승제의 1923년 청산학원 유학시절 2년 동안 한 방에 기거하면서 믿음의 의형제를 맺은 사실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조현정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야고보서』의 ‘이른 비와 늦은 비에서 영감을 얻어 생일이 늦은 송창근이 만우가되고 앞선 조승제는 춘우가 되었다(약5:7; 신 11:4).

10) 김형민, “세상을 뒤늦게 본 문익환 목사의 열정”, 『시사인』 2017.7.8. 첫 번째 시집 『세삼스런 하루』(1973)에 처음으로 ‘늦봄’이 쓰인다.

가 기독교 반공지식인에서 민주통일운동가로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그의 다양한 형태의 내러티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늦봄의 친구인 장준하의 죽음 후의 내러티브 변화를 통해 그의 사상적 전환과정에서 민주통일의 담론이 단지 기독교공동체의 담론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담론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늦봄 내러티브 속의 통일 내러티브는 기독교사회윤리적(내러티브 윤리) 방법으로 재해석할 때 탈분단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추구해야 할 화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늦봄 문익환(1918~1994)은 한국 현대사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에서 그의 행보는 그의 다양한 활동과 끊임없이 생산된 내러티브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사후 이재정을 비롯한 인사들이 ‘통일맞이 늦봄 문익환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문익환 전집 출간위원회를 만들어서 1999년 1월 사계절출판사에서 『문익환』 전집 11권을 세상에 내놓았다. 1권~2권은 시집이고, 3권 5권은 통일 관련 내러티브, 6권은 수필, 7권 9권 옥중서신과 건강, 10권 11권은 신학, 12권은 설교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통일 관련된 것들은 3, 4, 5권인데 그것들은 따로 통일 1, 2, 3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문익환의 통일과 관련된 단행본은 유일하게 『통일은 어떻게 가능한가』(1984년) 한 권이다. 전집 『통일 1·2·3』의 원고는 ‘통일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실린 글 이외에도 여러 단행본이나 잡지·신문에 실린 글, 집에 원고 형태로 보존되어 있던 글 그리고 강연 녹음테이프를 푼 글 등을 모은 것이다. 글은 강연, 기고문, 설교, 연설문, 인터뷰 기사, 토론자로서의 발언 등 여러 형태를 띠고 있는데 수집된 것은 모두 실었다. 『통일 1』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민중과 역사와 더불어’는 1976년부터 평양 방문 직전(1989.2)까지의 글이다. 2부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는 평양 방

11) 김창주, 위의 글, 44-45.

문과 관련된 글과 평양 방문 이후(1989.3-1989.10)의 글(인터뷰 기사, 변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 등)이다.¹²⁾ 전집 4권 『통일 2』의 구성은 1부와 2부로 되어있다. 1부 ‘돌들이 소리치리라’에서는 1986.6-1987.5까지 시국에 관한 설교적 성격의 글인데 종교적 비유를 통해서 시국에 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2부 ‘민주통일의 깃발을 올리며’는 1989.5~1990.8까지의 민주통일운동의 성명서나 격려사, 연설문 등을 모은 것이다.¹³⁾ 전집 5권 『통일 3』의 구성은 3부로 되어있다. 1부 재판 기록은 1980.9.12.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한 최후진술부터 상고 이유서까지이다. 그리고 2부 회고록(1970년대와 1980년대의 민주통일운동), 3부는 대담 기사(18편)이다.¹⁴⁾ 여기서 ‘**통일 없는 평화**’는 공허하고, ‘**평화 없는 통일**’은 **맹목적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의 통일 내러티브를 들어보자.

그는 「씨알의 소리」 1978년 3월호에 기고한 “민주회복과 민족통일”에서 민주회복과 민족통일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민족통일은 전근대적 감상이 아니며¹⁵⁾, 한국 민족은 분단의 비극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민족통일은 역사적인 필연¹⁶⁾이라고 말한다. 또한 통일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아야 통일된 한국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된다고 주장하며 통일은 민주화를 전제할 뿐 아니라 민주화도 통일을 전제해야 한다고 말한다.¹⁷⁾ 그러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화는 남북 양극화를 심화시키거나 고착시키지 않고 이를 극복·지향해야 한다¹⁸⁾고 이야기한다. 또한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남과 북의 지배 이데올로기

12) 문익환, 「문익환 전집」 통일 1, 사계절, 1999, 10.

13) 문익환, 「문익환 전집」 통일 2, 사계절, 1999, 10.

14) 문익환, 「문익환 전집」 통일 3, 사계절, 1999, 10.

15) 문익환, 「문익환 전집」 통일 1, 19.

16) 문익환, 「문익환 전집」 통일 1, 20.

17) 문익환, 「문익환 전집」 통일 1, 22-23.

18) 문익환, 같은 책, 24.

의 통일을 말하는 남북통일도 아니고 휴전선으로 분단된 국토통일이라고 보다는 다른 이데올로기로 분열된 민족, 휴전선으로 서로 갈라진 민족을 통일하는, 통일된 조국은 국민이 명실공히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민주화와 통일은 뗈 수 없이 하나다’ 시간적으로도 분명히 선민주이지만 내용적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둘은 하나다. 또 하나여야 한다¹⁹⁾며 글을 맺고 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

「통일은 어떻게 가능한가」의 서문에서는 그의 통일 내러티브에 대한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많은 경우에 특별히 원고없이 이야기할 때 청중의 표정에서, 그들의 눈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곤 했습니다. 나의 깨달음이 청중에게서 오는 것을 발견하면서 나의 말은 애당초 나의 것이 아니요, 민족의 것이요 민중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²⁰⁾ ‘7.4 공동성명 이후의 민족 문제’와 ‘부활을 사는 믿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말로 전해진 글입니다.²¹⁾ ... 사상의 발전이나 논리의 전개 같은 데나 관심 있는 독자들은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 되풀이된 데는 나의 비논리성만이 아니라, 같은 말이 되풀이되어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²²⁾ ...우리의 몸부림 속에서 법칙을 찾아 논리를 전개하는 일 같은 건 후세에 맡기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죠²³⁾ ... 나는 최근 사람의 손으로 조작되지 않는 저류가 역사에는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글들이 이 흐름에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울려 나온 소리라면 얼마나 좋으랴 싶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울려나와 그 흐름 속으로 메아리쳐 울려 들어가

19) 같은 책, 같은 면.

20) 문익환, 같은 책, 76.

21) 같은 책, 같은 면.

22) 같은 책, 같은 면.

23) 같은 책, 같은 면.

는 소리아기를 빌 뿐입니다.²⁴⁾

이는 한기채가 “기독교윤리와 이야기”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야기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청중들의 반응을 조정할 수 있어서. 이야기를 변별하기 위해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일관성이 부족하고 여전히 변별하기 위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해방윤리, 평화윤리의 사례별 이야기를 모의고, 실제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행위자들이 공감하면서 의식화되고, 거기에서 윤리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론²⁵⁾으로서 내러티브 윤리는 통일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변하지 않는 상수처럼 자리 잡고 있는 분단의 고착화, 전쟁의 위협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어떻게 가능한가」(학민사, 1984)를 통해 문익환의 통일 내러티브를 들어보고 기로 하자.

문익환은 반공을 국시國是로 여기고 통일담론은 적대세력의 불온한 상상을 전하는 것이라고 여기던 시대에 통일에 대한 담론을 말로 전했고 그것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내곤 했다. 그의 통일내러티브는 학술적인 논문이나 책을 내놓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거나 들어야 할 청중들에게 연속성을 띠고 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익환은 『통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제1부 민족의 통일, 민족의 부활에서 문익환은 “저의 지론인 민주화와 민족통일은 하나라는 말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도 하나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고 하면서 민주화, 민주주의가 분단과 통일에 대한 감수성을 촉진시키고 분단극복과 통일이라는 가치를 통합시킨다고 이야기한다. 달리 말하면 우리 민족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분단이고, 이를 극복하고, 민족사의 새로운 출발점은 민족통일이며, 이는

24) 같은 책, 같은 면.

25) 한기채, 같은 글, 251.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다는 것이다.

1984년 6월 3일 “목민선교회 강연” ‘역사를 보는 눈’에서 “성서의 평화는 이즈러짐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라고 하겠습니까. 하느님의 상태라고 하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느님의 창조하신 그대로 완전한 상태입니다. <중략> 여기서 완전은 사랑의 완전입니다. 원수라고 미워하게 되면 그건 완전한 사랑이 못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에 평화가 깃들인다는 것입니다. <중략> 불의를 보고 눈으로 폭발하는 사랑이라야 완전한 사랑, 곧 샬롬이 되는 겁니다. 불의를 보고 폭발하는 사랑, 곧 정의가 평화의 기둥입니다. 정의가 기둥이 되어 있는 평화는 사회 구석구석이 병들지 않은 건강한 사회를 말합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회를 말합니다. <중략> 빈곤의 극복은 소수 특권의 전유물·특권이 되어 있는 자유를 만민의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리하여 샬롬은 사랑이요, 정의요, 평등이요, 자유입니다. 이 평화가 십자가의 과제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적인 과제입니다.”²⁶⁾ 통일에 있어서도 평화가 있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는 민족 통일의 문제는 평화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리고 통일이 평화의 문제라면 민주화도 평화의 문제라고 한다. 평화에는 적이 둘이 있는데, 그 하나는 전쟁이고, 또 하는 빈곤이라고 한다. 이 둘은 때려야 뗄 수 없이 붙어있는 문제이고, 인과관계로 깊이 묶여 있다고 표현한다. 우리는 “**통일 없는 평화**’는 공허하고, **평화 없는 통일**’은 맹목적이다”라는 그의 목소리에서 생각을 들을 수 있다.

「문익환 전집-통일」의 제1부 ‘민중과 역사와 더불어’는 1989년에 쓴 글 ‘민족을 통일하는 민주주의’를 맨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민주화운동으로 이해한다. 민주주의는 일체의 주종 관계를 일소하

26) 문익환, 같은 책, 16

는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 사회에서는 누구나 그 사회의 주권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피지배자의 자리로 밀려났던 사람들이 다 역사의 주체로 복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만이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분열된 민족을 통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²⁷⁾ 이 글에서는 민족통일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이해하고 있는 늦봄의 통일이야기의 핵심을 보여준다. 문익환이 말하는 ‘한국 민족의 통일은 단순하게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세계사적 일이다’²⁸⁾는 인식이 탈통일 상황 속에서도 통일의 가치를 추구할 출발점이 될 수 있다.

III. 방북 이후의 내러티브 그리고 탈통일 상황 속의 통일의 가치

잡꼬대 아닌 잡꼬대 - 문익환

사십 사 년이나 억울하게도 서로 눈을 흘기며
부끄럽게도 부끄럽게도 서로 찢러 죽이면서
괴뢰니 주구니 하면 원수가 되어 대립하던
사상이니 이념이니 제도니 하던 신주단지들을
부수어버리면서 말이야

<중략>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뒤바꾸는 일이라고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뒤엎는 일이라고
맨발로 바위를 걸어차 무너뜨리고
그 속에 묻히는 일이라고

27) 문익환, 「문익환 전집」 통일 1, 320.

28) 문익환, 같은 책, 323.

넋만은 살아 자유의 깃발을 드높이 나부끼는 일이라고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야 하는 이 땅에서

〈중략〉

난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
임진강을 헤엄쳐서라도 갈 테니까
그러다가 총에라도 맞아 죽는 날이면
그야 하는 수 없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뉘으로 사는 거지

문익환은 1989년 첫날 새벽에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는 시를 쓴다.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 기어이 가고 말 거야 이젠/ 잠꼬대가 아니
라고“ 썼던 시구 그대로 1989년 3월 25일 정경모, 유원호와 함께 분단의
장벽을 넘어 평양을 방문한다. 그의 방북 이후 한국의 통일운동은 ‘냉전
하의 통일 운동시대를 마감하고 ‘탈냉전’을 자신의 과제로 삼아 내러티브
를 전개한다. 문익환의 통일내러티브는 3.1민주국구선언 이후 몇 차례
변화를 보이는데, 1980년 광주민중항쟁과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변화한다. ‘민주화와 통일은 하나다’, ‘통일은 민족해방의 완성이고 민족
자주의 성취이다’, ‘통일의 주인은 民이다’ 등이 보이는 1989년 방북 때의
그의 통일론이다. 그는 자신의 ‘상고이유서’에서 그런 생각을 더 구체화한
다. 그에게 있어서 또 다른 내러티브의 변화는 김일성과의 두 번에 걸친
회담 이후이다. 새로운 통일운동은 냉전시기에 맞지 않고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바라보면서 반(半)국이 아니라 한반도 차원에서 통일
운동 그리고 ‘중립성의 원칙’과 ‘합법성의 원칙’을 강조한다. 또한 통일을
위한 시급한 준비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준비 없는 통일의 비극성을 준비
없이 맞이한 해방이 분단으로 귀결된 것처럼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

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문익환, 「문익환 전집」 통일 1, 제2부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러티브는 1989년 4월 9일 카와사키·시나노마치 교회에서의 설교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회의’주최 시민대학 강연(1993.10.21.)²⁹⁾ 문익환 목사의 통일론이다.

우선 ‘가와사키·시나노마치 교회 설교’에서는 늦봄은 ‘평양에 간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요인을 제거하려는 데 있었다. 전쟁의 근본 요인은 분단이다. 따라서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운동은 평화운동일 수밖에 없다³⁰⁾라며 평양방문목적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은 전쟁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국도 통일을 지원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러한 점은 자신의 방북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통일, 평화의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익환 목사의 통일론’을 살펴보면 우리가 걸어온 역사 현장의 내러티브를 발견하고 늦봄의 통일 이야기, 또는 내러티브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방북 이후 늦봄은 냉전시기 통일운동은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으며 탈냉전 시기에 새로운 통일 운동 전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늦봄은 통일의 시급성에 대한 먼저 언급한다. 1995년까지라는 시한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한다. 북쪽의 중대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며 흡수통일론이 부각되는 현실에 대해 강하게 부정한다. 미국과 일본 등의 주변 국가들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1995년에 주목한다. 늦봄은 1989년 방북해서 내놓은 첫 마디가 “분단 50년 넘기지 맙시다. 분단 50년 넘기는 것은 민족의 치욕입니다³¹⁾. 그가 김일성 주석에게 들은 소리는 “좋습니다. 해봅시다”, “잘하면 되겠죠. 잘하면...”이라는 답이었다.³²⁾ 또한 늦봄

29) 이 강연은 「평화와 통일」 1994년 1·2월 합본호에 수록되었음.

30) 문익환, 같은 책, 377.

31) 문익환, 같은 책, 486.

은 평양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번에 말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가슴과 눈으로 하는 대화를 하러 왔습니다. 어느 한편을 이롭게 하고 한편을 불리하게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이로운 말이 무엇이었느냐는 걸 찾아왔습니다. 한편이 이기고 한편이 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길을 찾아왔습니다.”³²⁾

여기서 그는 그전과 다른 입장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늦봄은 통일 은 민의 오랜 미움을 청산하지 않으면 피바다가 되며 통일은 국토를 통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국 통일은 역사를 통일하는 것이며 반세기 넘는 동안 반목질시하고 적대하던 남북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강조하는 것은 흡수 통일이 아니라 진정한 통일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체제의 이념을 상호 보완 하는 관계를 만드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통일은 인류의 오랜 과제인 자유와 평등의 조화와 종합,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며 우리는 세계 인류의 길고 긴 과제를 풀어내는 민족이 되고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사회를 전 세계를 향해 보여주는 민족이 되며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모습 은 바로 이것이다.

이런 문익환의 통일 내러티브에서 나타나는 늦봄의 생각을 강정구는 “큰 통일 일꾼 늦봄을 기다리며”라는 「문익환 전집」 통일 1, 2, 3권의 해제 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늦봄의 민족 사랑은 단순한 사랑 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을 바탕으로 민족의 하나됨을 위한 실천 지향적 사랑이었다. 둘째, 감상적 통일론자의 맹목적 사랑이나 돈키호테의 발상이 아니라 그의 거래 사랑은 철저한 현실 분석과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 하는 것이었다. 셋째, 그의 사랑은 남쪽에 국한되거나 북쪽에 편향되지도

32) 문익환, 같은 책, 같은 면.

33) 문익환, 「문익환 전집」 통일 3, 124.

않았으며, 부자나 경상도에만 기울어진 류의 사랑이 아니라 다 함께 아우르는 사랑이었다. 넷째, 그의 나라 사랑과 그가 추구한 통일은 맹목적인 사랑이나 통일이 아니라 “동서로 갈라진 민족이 통일되고” 지배와 피지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도시와 농촌, 남과 여, 기업가와 노동자가 통일되는 통일을 상징하였다. 다섯째 그의 나라 사랑은 어떠한 국수주의나 반동적 민족주의도 배격하였다.³⁴⁾

통일의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문제라는 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의 현재의 자부심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연적이다. 이 과정은 당장에 통일이라는 미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시작되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그 귀결이 통일이든 아니든 脫 분단이라는 과정이라는 과정이 남북한 자신들의 자부심 위에서 각개 약진하는 현재 이 시간은 상당 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익환의 통일 내러티브에 대한 K-공동체의 서사 나눔이 지속된다면 혐오와 갈등으로 펼쳐지고 있는 현재의 교착관계에 있는 남북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역사적 존재이다. 특정한 신념, 실천 및 소속과 연관된 특수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살아간다. 모든 지식은 역사적으로 근거 지워져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일정한 맥락에 지배를 받는다. 만일 인간의 본성과 사회가 근본적으로 불변하는 것이라면, 일반원칙들은 확고부동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어떤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과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맥락의 다양성과 정황적 특수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역사에 대한 인식은 도덕적 결단을 내리는 정황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특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삶의

34) 강정구, “해체-큰 통일 일꾼 늦봄을 기다리며”, 문익환, 『문익환 전집』 통일1, 514-515.

연속성은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역사의식이라는 요소를 적용하게 되면, 결단의 순간들에 잠재된 독특성을 인정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다.

역사의식의 발흥에 대해 기독교가 보여주어야 할 반응은 어설픈 적이어서는 곤란하다. ‘상황윤리’, ‘비례주의윤리’, ‘해방신학’, 민중신학 등 다양한 윤리들은 역사의식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가 있어 보인다.³⁵⁾ 문익환의 통일 내러티브를 읽다 보면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 들리는 데 각각의 정황에 잠재한 독특성에 주목하고 역사적 변용과 변경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반응하며, 전쟁과 빈곤에서 벗어나 지향해야 할 바는 평화와 특권층만 누리는 자유, 행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다.

IV. 나오는 말: 늦봄과 따로 또 같이 통일을 꿈꾸며

우리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사람의 통일’, ‘과정으로서의 통일’, ‘사회문화적 통합’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의 의미는 서로 이질적인 체제, 제도, 이념 속에서 살아온 두 집단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새로운 민족공동체로서의 ‘통합’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통일은 ‘사람 중심’, ‘일상생활 중심’적이어야 하며, ‘차이’에 주목하며 지속적으로 남과 북이 서로 소통을 고민하며, 분단의 상처와 적대를 극복하는 것으로 다가온다.

문익환의 통일 내러티브를 읽다 보면 이승환의 지적처럼 그가 어떤 사

35) John A. Gallagher, *Time Past, Time Future: An Historical Study of Catholic Moral Theology*(New York: Paulist Press, 1990), pp.223~64; John Mahoney, *The Making of Moral Theology: A Study in Roman Catholic Tradition*(Oxford: Clarendon Press, 1987), pp.321~37(조셉 코트바 Jr., 『덕 윤리의 신학적 기초』, 문시영 옮김, 궁핍, 2012, 23에서 재인용)

상이나 이론에 경도되지 않았고, 교조에 기울어지지 않았으며, 자신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만난 민중의 현실을 바탕으로 반공주의와 분단국가주의를 극복하고 한국 통일운동의 사상·실천적 정점에 우뚝 섰던 것을 알 수 있다. 늦봄의 통일론의 형성과 성격을 연구한 이유나는 문익환의 통일 사상형성에 영향을 준 것은 기독교 가정과 학교를 통해 기독교 신앙과 민족정신을 배우고 영향을 받았으며, 1975년 8월 친구 장준하의 죽음³⁶⁾이라고 이야기한다. 장준하의 죽음은 그를 더 이상 신학자의 길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가가 되게 하였다. 이유나는 계속해서 문익환의 통일론 형성에 있어서는 그의 스승인 김재준과 안병무의 영향이 크며 이 두 신학자의 영향으로 늦봄의 통일신학은 민중중심의 관점과 사고가 강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평화신학의 더 큰 맥락에서 통일을 위한 화해를 이야기하는 신학을 전개하게 되었다고 한다.³⁷⁾

문익환 『전집』 속의 다양한 형식의 리터러시와 그의 생애와 사상을 다룬 평전 및 각종 연구서에서 갈등과 혐오 너머의 가치 다시 말해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갈등과 혐오, 증오는 21세기에 여전히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상이기 때문이다.

36) 이유나, “문익환의 통일론의 형성과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 27(2007.9), 197.

37) 이창호, 『평화통일 신학과 실천: 기독교 통일 연구의 흐름과 전망』, 나눔사, 2019, 59.

참고문헌

- 문익환, 『문익환전집』 1~12권, 사계절, 1999.
-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통일인문학연구단 엮음, 『인문학자의 통일사유』, 선인, 2010.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사상이념팀 엮음,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패러다임』, 선인.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기획, 『통일담론의 지성사』, 패러다임 북, 2015.
-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통일인문학연구단 엮음, 『한국지성과의 통일대담』, 패러다임 북, 2018.
-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연구회 엮음,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기독교문사, 1985.
- 김남일, 『통일할아버지 문익환』, 사계절, 2002.
- 김형수, 『문익환평전』, 다산책방, 2018.
- 문동환, 『문동환자서전』, 삼인, 2009.
- 송우혜, 『윤동주 평전』, 세계사, 1998.
-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 이유나, 「문익환의 통일론의 형성과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27 2007.9, 173-198.
- _____, 「문익환의 기독교 신앙과 사회참여: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40 2014.3.
- 이정희 외, 『민중신학, 고통의 시대를 읽다』, 분도출판사, 2018.
- 이창호, 『평화통일 신학과실천: 기독교 통일 연구의 흐름과 전망』, 나눔사, 2019.
- 정경모, 『찢겨진 산하』, 거름, 1896.
- 정성한, 『한국기독교통일운동사』, 그리심, 2003.
- 조셉 코트바 Jr., 『덕 윤리의 신학적 기초』, 문시영 옮김, 공휴, 2012.
- 최민희, 「우리시대의 통일꾼 문익환」, 『말』, 1990년 12월호.

논문투고일: 2024년 11월 15일

심사개시일: 2024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09일

• 국 문 초 록 •

이 연구는 늦봄 문익환 목사의 통일내러티브를 단지 1980년~90년대의 화두, 이미 지나간 통일에 대한 이야기로 간주하지 않고 한민족, 한국 또는 코리아로 이야기되는 K-공동체속의 살아있는 내러티브로 평가하며 이 내러티브가 가지고 있는 영향을 기독교사회윤리학적으로 살펴보았다.

문익환의 다양하고 풍부한 내러티브는 한민족 공동체가 공유해야 할 통일 내러티브를 담고 있다. 그가 기독교 반공지식인에서 민주통일운동가로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그의 다양한 형태의 리더러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1950년 이전과 이후 그리고 장준하의 죽음 후의 내러티브 변화를 통해 그의 사상적 전환과정에서 민주통일의 담론이 단지 기독교공동체의 담론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담론이 될 수밖에 없음을 분석하였다. 늦봄 리더러시 속의 통일 내러티브는 기독교사회윤리적(내러티브 윤리) 방법으로 재해석할 때 탈분단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추구해야 할 화두로 자리매김한다.

주제어: 문익환, 통일내러티브, 기독교사회윤리적 고찰, 내러티브 윤리학, 기독교 공동체
